SOCIETY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유난히 더웠던 7월… 폭염일수·열대야 '역대급'

'27.8도' 평균기온까지…1994년 이후 두 번째 기록
북태평양 고기압 한반도 확장에 '이른 무더위' 발생

2025년 7월 광주·전남지역의 평균기온, 열대야, 폭염일수가 역대 2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후특성' 자료에 따르면 7월 광주·전남지역 평균기온은 27.8도로 기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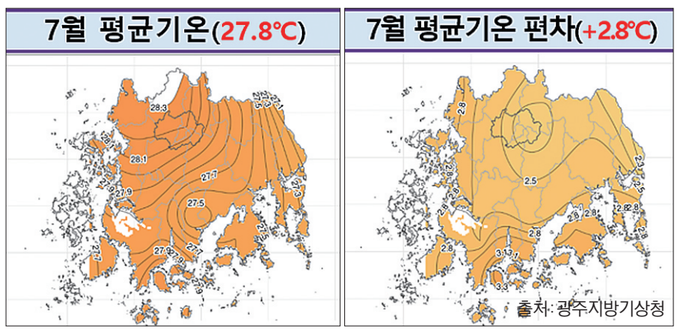
이는 1994년 28.0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년(25.0도)보다 2.8도, 지난해(26.6도)보다 1.2도 높은 수준이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이르게 한반도 남쪽까지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난 6월 말부터 한반도를 덮었고, 낮 동안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며 이른 더위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월 말부터 이어진 무더운 날씨는 지난달 9일 광주 낮 최고기온이 36.7도까지 오르는 등 지속됐다.

6월28일부터 7월11일까지 2주가량 광주·전남 일 평균기온은 1위(각 해당일 기준, 7월 5일은 2위)를 기록하며 7월 상순에 이례적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특히 7월 상순 광주·전남 평균기온도 28.4도로, 가장 더웠던 2022년 27.3도보다 1.1도, 평년 23.6도보다 4.8도 높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높은 기온 속 폭염과 열대야도 기승을 부렸다.

7월 광주·전남 폭염일수는 15.6일로 평년 13.0일보다 2.6일 많았고, 1994년 16.3일보다 0.7일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광주(21일)·완도(22일)·장흥(20일)·고흥(20일) 등에서는 한 달의 절반 이상 폭염이 발생했다.

올해 7월 열대야 일수는 11.7일로 평년 7.3일보다 많았다. 이는 지난해 13.1일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일수다.

목포지역의 경우 평년 6.4일 대비 3.3배 더 늘어난 21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7월 광주·전남지역 평균 강수량은 230.4㎜로 평년 259.4㎜과 유사한 수준으로 내렸고, 특히 중순에 213.2㎜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때문에 광주·순천·강진에서는 1시간 최다강수량 7월 극값을 경신하기도 했고 광주는 일강수량이 426.4㎜을 기록했다.

함동주 광주지방기상청장은 "올해 7월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례적으로 빨리 시작되고 중순에는 집중호우, 이후 다시 극심한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며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다"며 "기후변화로 기후변동성이 커지고 여러 극한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상기후 현상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도시공원 내 흡연 안 돼요"
남구, 8월 한 달 43곳 점검

광주 남구가 도시공원에서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금연표지판 시설 정비 및 흡연 행위 점검에 나선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도시공원 43곳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남구는 담당 공무원 4명과 금연 지도원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43곳을 방문, 공원마다 설치된 금연표지판 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한다.

훼손된 표지판은 오는 10월말까지 전부 교체하고 시설물 점검 과정에서 도시공원 내 흡연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담배를 피우다 현장에서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다수가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면서 "금연문화 정착으로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공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산구, 계약심사로 예산 3억3400만원 절감

광주 광산구가 2025년 상반기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예산 3억3400만원을 절감했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계약심사는 각종 사업의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를 사전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광산구는 △1억원 이상 공사 △3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 구매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총 103건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공사 분야 3억2000만원, 용역 분야 1400만원 등 총 3억3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심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 공법의 타당성, 설계변경 금액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더위 탈출' 5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실내빙상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열린 문화공간 '우뚝'

3월 시행 이후 10만명 방문…볼거리·즐길거리 다채
골목상권·지역경제 활성화도…12월까지 운영 예정

광주 동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 중인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시민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5일 동구에 따르면 금남로 공원부터 전일빌딩245 앞까지 5차로 도로 540m(폭 3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 3월부터 첫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오후 2~8시)마다 운영하고 있다.

대표 슬로건은 걷자잉(ing)으로, 이 안에 '찍어잉', '쉬자잉', '줄여잉', '놀자잉' 등 공간을 마련해 매달 테마별로 4월 ESG 유소년축구대회, 5월 어린이날 행사, 6월 오징어 게임, 7~8월 여름 물 관련 행사 등을 진행했다.

지난 3월8일부터 7월5일까지 5회차 운영 결과, 꾸준히 방문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3월8일부터 7월5일까지 총 5차례 운영 결과 누적 방문객 수는 약 10만명에 달한다. 3월 개장일에는 1만1600여명이 방문했고, 이후 4월 1만1800명, 5월 2만1000명, 6월 3만6400명, 7월에는 2만6500여명이 찾았다.

6월부터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존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한 것은 '신의 한수'가 됐다. 이처럼 차 없는 거리가 방문객으로부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자동차로 가득한 금남로에서 친환경 동아리와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하는 플리마켓, 분필 아트존,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 놀이터, 길거리에서 즐기는 버스킹 공연,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 도심 속 친환경 행사가 펼쳐졌다. 또 상인회와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마련한 장터는 침체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

동구는 9월부터 12월까지(10월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제외)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특히 연말에는 '미리 메리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맞이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택 청장은 "금남로 '차 없는 거리'의 진정한 가치는 광주의 역사가 깃든 금남로를 자동차가 아닌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 없는 거리'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특검 "尹 변호인 선임서 제출…일정 조율"
'출석불응'에 결국 체포영장으로 구인 시도 극한 대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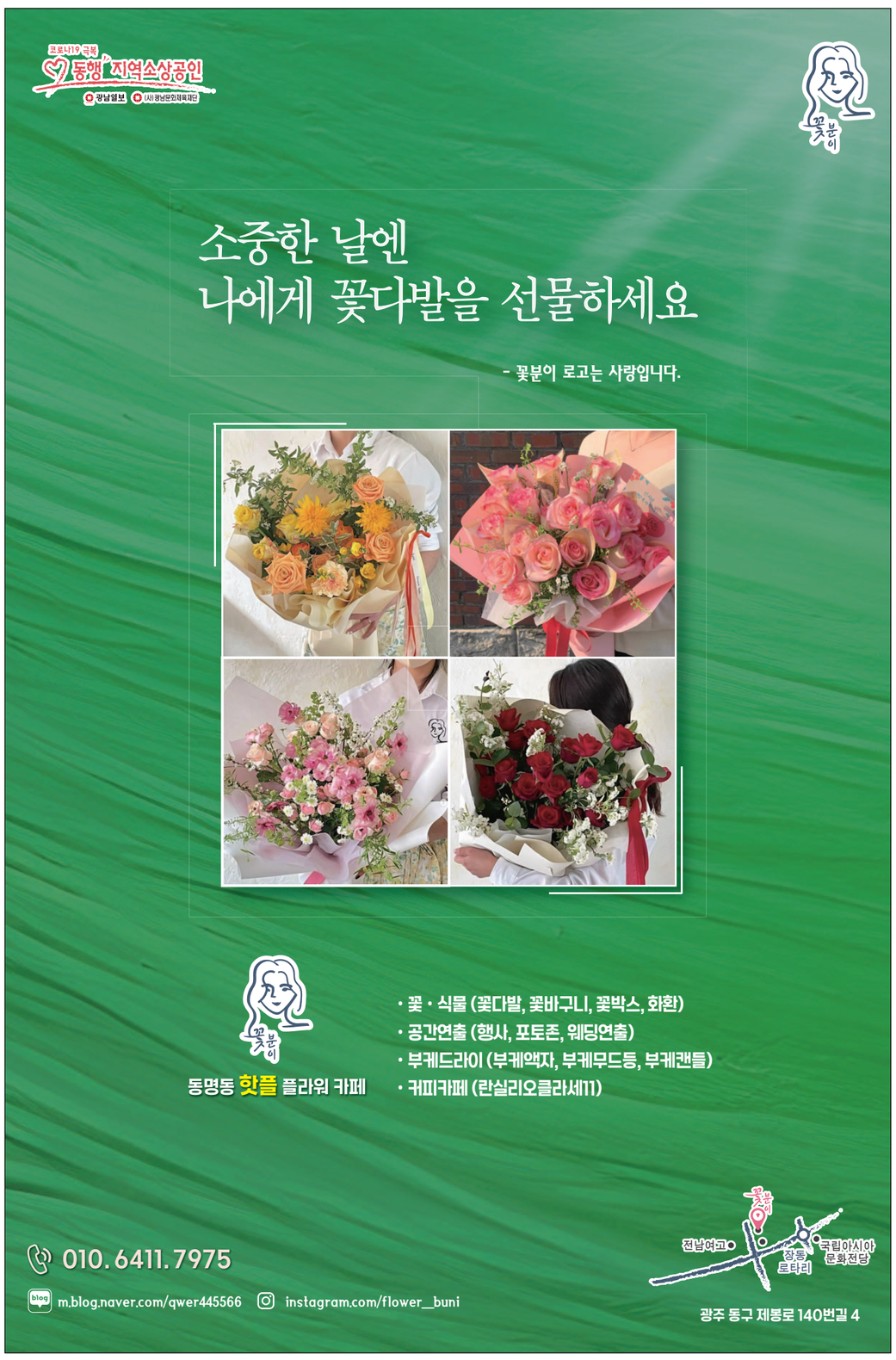
이에 따라 특검팀도 김 여사의 첫 소환조사일인 6일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오늘(5일), 내일(6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선임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헌재 탄핵심판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변호인단·대리인단으로 활동해왔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지난 1일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에 가 그를 구인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고 누워 완강히 저항해 무산됐다.

특검팀은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조율 의사를 밝힌 만큼 일단은 변호인과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방식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체포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겠다는 의지도 드러낸 바 있다. 연합뉴스